

플렉소 인쇄제판 최고 기업

플렉소 인쇄 기술관련 전문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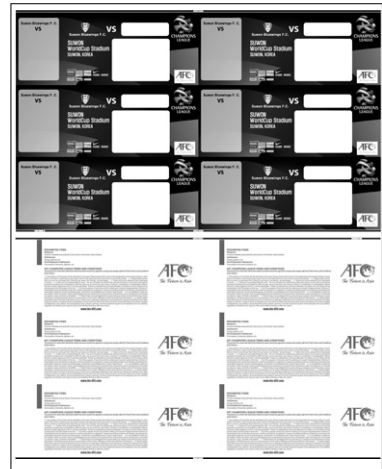
정성곤
(주)경화 대표이사

플렉소 인쇄는 그동안 지류 인쇄에 사용되는 것으로 구분되어 왔고 산업에 있어서도 대부분 지류 인쇄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연포장에도 플렉소 인쇄가 도입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플렉소 인쇄에 있어 중요한 제판에 대해서는 중요도를 인정하는 것에는 인색한 실정이다.

지난 1976년 경화기업으로 창업해 플렉소인쇄 제판을 전문으로 하는 주식회사 경화(대표이사 정성곤)가 연포장 인쇄에도 플렉소 제판 기술을 적용, 인쇄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

경화는 그동안 골판지 인쇄를 위한 제판 기술에 대한 설비 투자는 물론 몇 년 전부터 연포장에도 플렉소 인쇄가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연포장 플렉소 인쇄 제판에 필요한 설비와 기술을 축적, 본격적인 보급에 나서고 있지만 시설투자에 비해 연포장 플렉소 인쇄 시장은 활성화가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선투자를 해 바로 성공을 하기 어렵게 업계 현실임을 감안하면 경화의 앞선 행보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했지만 플렉소 인쇄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킨다는 과감한 투자는



▲ 티켓인쇄

업계의 기술 발전을 앞당긴다는 소명감도 작용했다.

실제 연포장에서는 플렉소 인쇄가 그라비아 인쇄의 품질을 따라오지 못했던 게 사실이지만 몇 년전부터 플렉소 인쇄기가 가동되고 기술발전을 이뤄 인쇄품질의 향상을 보여 연포장에도 플렉소 인쇄

가 이루어 지고 있다.

수작업에 의존하던 제판작업에 있어 인건비 문제가 대두되면서 20여년전 골판지 인쇄부터 수지판을 도입해 인건비 문제는 물론이고 수지판을 도입해 제조원가를 낮춤으로써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었다.

경화에서 연포장에 플렉소

인쇄 활성화에 대비 시설투자는 물론 기술개발을 서두른 것은 프리프린팅, 라벨, 지대 등 고급인쇄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분야의 인쇄에 도입하여 고급 인쇄 제품을 공급하겠다는 경화의 정 사장은 “그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다져진 기술을 혼자만 보유하지 않고 그라비아에서 플렉소로 전환하는 경우 모든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 밝혔다.

특히 플렉소 인쇄가 환경차원에서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인쇄인크도 유성에서 수성으로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기계와 원부자재까지 복합기술이 필요해 포장인쇄업계의 기술발전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고 한다.

정 사장은 대기업들의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 이유는 플렉소 인쇄기계의 도입시 제판시설을 자체적으로 갖추지 못해 대부분 외주처리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전의 그라비아와는 다른 방법의 인쇄임을 인정하여 전문업체에게 맡겨야 됴에도 저렴



▲ 소핑백 인쇄



▲ 지대 플렉소 인쇄

KYUNG HWA

한 가격을 찾다보니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며 이제는 전문업체와 협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

경화의 경우 플렉소 인쇄기

계 도입전에 모든 자문과 정보를 제공할 자세가 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다고 한다.

플렉소 인쇄는 원재료, 주

자재 등 100% 수입에 의존하다보니 원가 절감에 어려움이 있어 가격이 비싸고 수입업체의 횡포도 만만치 않아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원부자재의 개발이 절실하다고 느껴 몇몇 중요 원자재를 국내에서 개발해 놓고 있다.

올해 경화는 지난해 보다 30% 신장한 매출목표를 세워놓고 25명의 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휴게실과 당구, 탁구를 치며 피로를 풀수 있는 운동 시설과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엄격한 위생관리를 통해 제공되는 자체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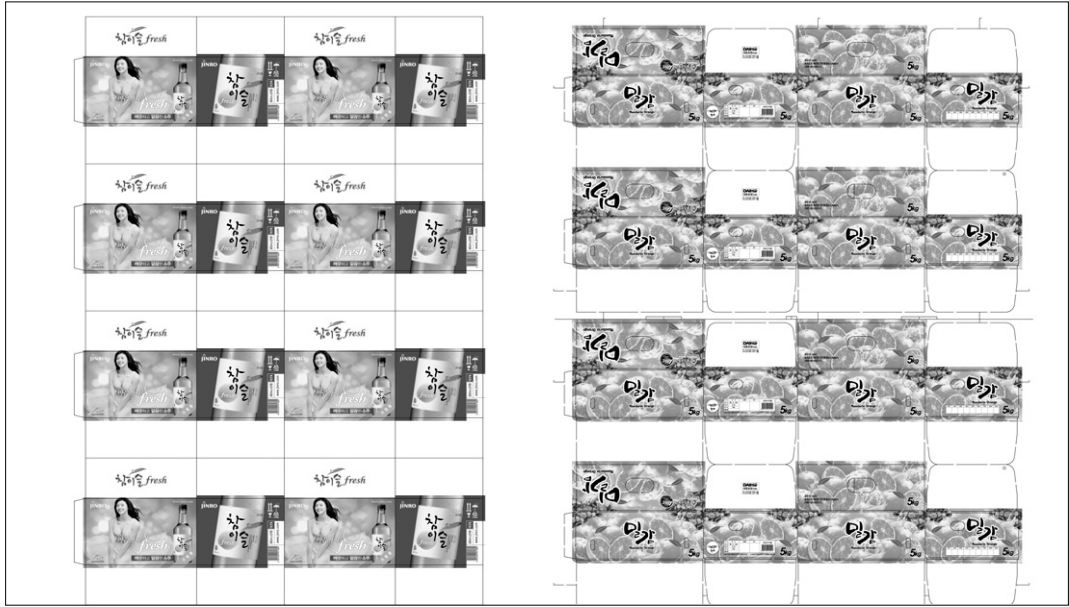
직원간의 단합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원가 절감 등이 이루어 내고 있다는 정 사장은 “가격경쟁을 부추기는 유저들은 가격이 낮아지면 품질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가격이 아닌 품질경쟁을 유도하고



▲ 라벨인쇄



▲ 골판지 박스 인쇄



▲ 프리프린팅된 인쇄물

적정한 가격을 지불해야 좋은 품질의 제품을 공급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좋은 품질을 위해서는 협력사와 원가는 물론 전반적인 부분에서 마음을 열고 기술수준 등 서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하며 전 공정을 현장에서 직접 평가해야 가격경쟁이 아닌 품질경쟁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플렉소 설비를 어느 업체보다 먼저 투자하고 기술력에서 자신 있는 만큼 플렉소 인쇄, 제판과 관련한 것에는 경화를 적극 이용하고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자신한다.

제판은 조금 늦더라도 확실하게 교정되어야 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한 만큼 직원들에게도 철저한 품질관리를 강조한다.


포장분야는 아주 넓어 자부심을 갖고 투자해 불만하다고 한다.

그러기에 경화는 앞선 투자와 기술개발, 원자재 개발 등 우리 나라 플렉소 인쇄기술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

플렉소 제판기술의 국내 최고 기업을 자부하는 경화는 인쇄 종주국의 영예를 잇는

기업이라는 자부심으로 교정, 조판, 플렉소제판, 디자인 등 플렉소에 관한 모든 것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또한 팀워크를 통한 시너지 창로 최고의 품질, 최상의 고객 만족, 친환경 기술, 푸른 미래 창조를 슬로건으로 인쇄 시장에서 친환경을 주도하고 있다.

최상의 품질을 향한 열정으로 국내 플렉소 인쇄시장을 개척해 가고 있는 경화를 통해 플렉소 인쇄가 더욱 발전하고 있다. 

〈鎮〉